

청 원 서

불. 법. 승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윤기중 단장님께 청원합니다.



올해 포교사 갱신 대상자인 준포교 원효팀 소속 17기 보명 강대관 포교사님은 갱신 서류를 모두 제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비 미납으로 인해 포교사 갱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대관 포교사님은 포교사 되던 해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 암수술을 받았으며 2·3년 전 부터는 다시 재발해 서울 병원까지 오고 가며 통원 치료를 계속 받아 왔습니다. 설상가상 같은 시기에 사업이 부도나서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통장이 압류되어 단비자동납부가 되지 못하였고, 현재 개인적으로 몹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포교 원효팀의 팀장으로써 2017년까지 4년 동안 팀을 이끌고, 팀원들을 챙기고, 해병대1사단 준부대를 오고 가며 팀 활동의 전반에 걸친 모든 부분에서 열심히 활동 해왔습니다. 또한 팀장으로써 불교 사암연합회 봉사 활동도 꾸준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후반부터는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2018년 봄부터 최근 3개월은 목소리에 이상이 생겨 말을 하기 힘들 정도까지 건강이 악화 되었으며, 결국 2018년 9월 3일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향후 3개월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은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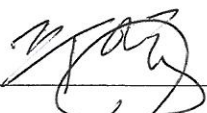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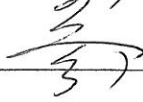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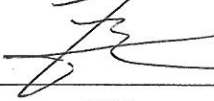


이런 와중에 모든 필수 교육 이수는 물론 포교사 갱신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비 미납으로 인해 갱신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 팀원들도 단비 부분을 신경 쓰지 못했으며, 본인도 그동안 그럴 경황이 없었습니다. 미납단비 60만원은 10월 10일 송금하였고, 8월부터는 변경한 우체국계좌에서 자동납부 되고 있습니다.

강대관 포교사님은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 할 수 있는 많은 장점과 능력을 가진 분이며, 본인도 포교사 활동을 함으로써 암 투병 생활에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포교사 활동에서 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준포교원호팀(준포교1팀) 팀원일동은 10월9일 하루 낮 법당에 모여 도반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한 배려의 부족했음을 참회하며, 다라니 27독과 오백배의 참회기도를 마치고 이 청원서에 서명하여 올리오니 부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어 선처해 주시길 바라며 보명 강대관포교사를 꼭 갱신 시켜 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불기 2562년 10 월 11 일

경북지역단 동부총괄팀 준포교 원호팀 팀원일동

기 수	불 명	이 름	서 명
21기	백 매 식	김 옥희	
20기	명 원	최 성석	
20기	자 명 화	이 인숙	이인숙
21기	도 일 원	손 영근	
14기	반 야 화	강 미숙	
22기	정 범 수	김 정희	
22기	전 준	꾸 인숙	
20기	정 혜	이 중 분	
14기	공 덕 화	도 순자	
21기	윤 여	이 명숙	
14기	대 덕 화	정 숙경	
17기	보 명	방 대 원	
21기	자 광 심	최 순덕	
20기	화 안	원 재 리	
20기	무 상 행	강 나연	강나연
15기	자 생 각	여 화 자	여화자